

“**李** 경제관은 **反**서민 **親**재벌”

신당, BBK 의혹에 재벌관 집중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상대로 ‘전방위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의혹성 소재들을 집중 발굴해 이슈화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경제관을 ‘반(反) 서민적, 친(親) 재벌적’으로 몰아세우며 정책적 대립각을 선명히 세우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먼저 정 후보측은 이 후보의 BBK 의혹을 정조준해 파상적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정 후보측은 신당 원내지도부와 공동보조를 맞춰 국정감사가 열리는 상임위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의 비리의혹을 적극 띄우고 캠프 전체의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당내에 구성된 ‘이명박 의혹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주요 상임위 단위에서 일정한 역할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지도부도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측 정무인 한나라당 선대위 전략기획총괄팀장이 ‘김씨의 귀국은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만들어진 범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 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는 ▲행복한 가족 ▲넓고 많은 기회 ▲차별없는 성장 ▲약자·소수자 통합 ▲한반도 평화 등 5대 가치를 중심

으로 이 후보와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지지기반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대 반(反) 평화’ 구도로의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강국론과 금산분리 원칙 고수를 통해 재벌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이 후보의 경제관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후보의 경제관을 겨냥, “지금 금산분리 원칙을 파기하고 출생제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지배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체성공방가열

“**鄭** 폐쇄적 민족주의에 빠져”

한나라당, 정동영 때리기 본격화

한나라당은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 “좌파세력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보여준 측이 ‘BBK 주가조작 연루’나 ‘도곡동맹 차명모유’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벌이는 데 대한 반격 차원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현구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의 생각이나 언어를 전할하는 수법이 노무현 대통령을 빼담아 리를 노무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은 표현이 투박했지만 정 후보는

현란하고 단수가 더 높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 후보는 좌파 운동권 인식이 남아서 재벌과 부자를 누르면 중소기업과 서민이 살고, 정부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얘기한다”면서 “철 지난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 후보가 이 후보의 교육정책을 ‘고교입시의 부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의 획일적 통제 시스템을 거부하고 상황평준화를 하자는 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좌파 원리주의적 철학이 노 대통령 보다 더 공고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 “정 후보가 김정일 체제와 관계 개선에만 대북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

으며, 그의 차별 없는 성장 정책은 결국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 온다”면서 ‘좌파 세력의 폐쇄적 민족주의’라고 폄하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정 후보는 경선 내내 ‘친노의 정동영 죽이기’라며 반노선봉장처럼 행동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니 (청와대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다”면서 “불과 열흘 만에 뒤집은 것은 속이 보이는 교연연색”이라고 가세했다.

당 일류국가비전위 총괄간사인 이종구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가치논쟁을 들먹이며 특유의 분열주의적 낡은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화려한 이분법적 수식 어구의 알맹이 없는 공약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昌 ‘대선 출마설’ 점입가경

‘총청의 미래’ 회원 2,500여명 추대 대회 본인도 부인 안해...조만간 입장 밝힐 것



23일 서울 남대문 이회창 전 총재 사무실 앞에서 이회창팬클럽 연합 회원들이 ‘이회창’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재의 한 측근은 이날 “(이 전 총재가) 빠른 시간 내에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주목된다.

총청권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는 시민단체인 ‘총청의 미래’(대표 박석우) 소속 회원과 이 전 총재 팬클럽인 ‘참사랑’ 회원 등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이 전 총재의 개인 사무실이 입주한 남대문로터리 D빌딩 앞에서 ‘이 전 총재, 대통령후보 출마 촉구대회’를 가졌다.

50~60대가 대부분인 이들은 ‘검증된 후보’, ‘정치적 사람’, ‘법과 원칙’ 등의 뜻밖의 ‘정치공작의 희생양, 이회창은 담당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전 총재의 정치 재개를 촉구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이면서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총재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사수대회’ 집회에 참석, 대북정책 및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에 대한 보수세력의 시각을 대변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의 출마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재의 이홍주 특보는 이날 이 전 총재의 남대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라고 꼭 꼬집어 얘기하지 말라”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난 번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 정국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릴 기회나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의 의중을 잘 아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특보의 이날 발언을 놓고 이 전 총재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이 점차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이날 교총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총재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언급했다. /연합뉴스

권영길, 광주·전남서 農心·勞心잡기

23일 진보진영 대표 공동회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23일 광주·전남을 순회하며 농심(農心)과 노심(勞心)을 잡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했다.

권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진보진영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 진보로는 정글식 자본주의를 막아낼 수 없다”며 정동영 신당 후보를 겨냥한 뒤 “이번 대선은 가짜와 사이비 진보가 아닌 한미 FTA와 비정규직 양산을 거부하는 진정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이석형 민주노총위원장,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동참해 다음달 11일 민노당 주최로 열리는 ‘100만 민중대회’에 농민과 노동자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항쟁 이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진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보수세력의 특세로 표현되고 있는 대선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권영길 후보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10만 선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2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진보진영 4인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본 공동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 FTA비준저지와 비정규직 약법제지에 대한 찬반여부를 중심으로 대선-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등 동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의 몰락을 가져

李, 대선 전 ‘4강 방문외교’ 끝내 무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선 전 ‘4강(強) 방문 외교’가 결국 무산됐다.

이달 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불발 이후 러시아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측근들의 만류도 적지 않아 결국 이 후보가 뜻을 접은 것.

한 측근은 23일 “이 후보가 11월 중 가급적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를 방문해 경제의 교류를 선보일 방침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어렵게 됐다”면서 “대선 전에는 어느 나라도 방문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중·일·러 4강 외교가 끝내 불발된 데

는 핵심 측근들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막후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했던 ‘6인회의’ 원로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측근들은 이 후보가 직접 참석해야 할 전국 필승결의대회가 내달 중순까지 풀지어 열리고, 그 직후에는 곧바로 후보등록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등 일정상 도저히 해외방문을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반 지금부터 전문학원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목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 출제문제풀이 → 합격

개강 11월 12일(수) **연회원특혜** 99명 선착순 수료생에게만 **국비무료** (국가보훈처 지원)

공인중개사선명 전국합격률 1위 **42주 정고시학원** ☎ 361-8111
42주 공인중개사전문학원 ☎ 529-8111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통선약 조루-허리디스크
저지방 저칼로리 저지산염지방 문제해결에 있습니다.

☎ 112-1122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바다의 오소리

맛있는 바다와 맛있게 담백한 맛!
바다야아기에서 구워 드립니다.

- 특선코스케닝
 - 날더드 즉 사시미, 양파, 새우튀김, 굴이호박, 참깨튀김, 호동생선구이, 생선구이, 치즈
- 인어초밥 각종갈매기
- 생선구이와 조림
- 점심특선
 - 생선구이, 참치, 새우튀김, 감자, 콩나물

예약전화 TEL. (062)971-9285

첨단롯데마트 뒷편 주차장 입구 칠다솜이랑병원지하